# 광주시 "금호타이어 특별재난·고용위기지역 지정을"

## 수개월간 공장 가동 중단 불가피
## 임직원·협력업체 등 피해 눈덩이
## 고용·복구 등 범정부 지원 절실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공장 대형화재로 발생한 피해 복구와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잇따라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시와 구가 정부에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법에 규정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으로 인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생활 복귀와 주요 공공시설 복구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임직원 2,200여명, 식당과 경비 등 150여명의 공장내 지원 인력에 더해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로 인한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까지 합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주민은 광산구 어룡동 3만3,300여명, 송정1·2동 1만5,000여명, 도산·신흥동 1만8,000여명 등 총 6만7,000여명으로 화재 피해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 에 대한 복구비, 화재 진화 투입장비 임차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개월간 공장가동 중단으로 당분간 일터를 잃게 될 처지에 있는 근로자와 회사측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이,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화재로 3분의 2가 전소됐다"며 "2공장이 대부분 불에 타 가장 큰 문제는 2,350여명의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선 행전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공장 재가동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 해고 등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상의 고용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유예돼 근로자와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완전한 피해 복구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재난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두 가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용현 기자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조사
광주 광산구가 19일 구청 송정보건지소 1층에서 금호타이어와 공동으로 화재 사고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한 접수처 운영에 들어갔다. 접수처는 오는 28일까지 운영된다. 광주 광산구 제공

## 광주 '빛돌이' 결혼…24일 시청광장 '캐릭터 대전'

광주시는 오는 24일 오전 시청 앞 빛의 정원에서 시 대표 홍보캐릭터인 '빛돌이'와 여자친구 '빛나영'의 결혼식을 콘셉트로 한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23개 지자체·기관의 31개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여한다. 광주 동구 '충장축제프랜즈', 서구 '서해온', 북구 '부끄&부부'를 비롯해 서울 '해치', 부산 '부기', 대구 '도달쑤', 경기 '봉공이', 수원 '수원이', 공주 '고마곰'·'공주', 광양 '매돌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교통공사,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공공기관 홍보캐릭터들도 시민들과 만나 생활정보와 정책을 안내한다.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이 선보인 '두다', '마법소녀 디디', '다이노맨' 등 지역 창작 캐릭터들도 참여한다. 이밖에 미니 체육대회, 정책 골든벨, 캐릭터 홍보부스, 네컷 포토존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길용현 기자

## "양질 조사료 생산·공급"…전남도, 1004억 투입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 재배·수확지원 11개 사업

전남도가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축산 농가와 조사료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6%인 6만ha를 재배하는 주산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조사료 재배와 수확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1,004억원을 도내 조사료경영체(영농조합법인), 축산 농가, 경종 농가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50억원, 기계·장비 구입 122억원, 조사료 종자 구입 115억원, 퇴·액비 38억원, 가공유통시설 17억원, 입모중 파종 18억원, 품질관리7억원, 품질등급제 37억원 등이다.

사업별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의 경우 ha당 동계 114만원(t당 6만3,380원), 하계는 221만원(t당 6만3,380원)을 지원한다. 또 품질등급제를 받은 유통판매용 조사료는 동계 사료작물의 경우 ha당 최대 259만원을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조사료 재배·수확·운송에 필요한 트랙터, 결속기, 랩피복기 등 장비를 일반단지는 수확면적 20ha당 1억5,000만원, 전문단지는 70ha 당 3억원으로 총 122억원을 조사료경영체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도 홍미향영농조합법인에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사료 재배단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 1만7,000ha의 전문단지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종자, 퇴·액비 등도 일괄 지원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6%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라며 "유휴농경지를 적극 활용해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제조·운송비 지원단가를 t당 8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논에서 하계 조사료 재배 수요는 늘었지만 기계·장비 부족으로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정근산 기자

### 금호타이어, 공장이전 급물살 타나

▶1면서 계속

다만,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 비용 마련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할 투자자 확보는 이전 사업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지역경제계에서는 경제 피해 최소화와 공장 정상화를 위해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자본 먹튀 논란과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현재 부지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스타의 전방위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공장 이전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이번 화재로 생산 주요 공정이 멈춰서면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후 독립 경영 체제를 고수해왔던 더블스타가 광주공장에 대한 금전 지원 등 강력한 복구 의지를 보여준다면 공장 이전 사업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광주공장의 하루 생산량(3만3,000본)에 대해 평택, 곡성 공장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며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공장 이전 또는 시설 복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등에 1조2,947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다. 최대 보상한도는 5,000억원이다.

## 전남도 '섬의 날' 홍보대사 6명 위촉

전남도와 행정안전부, 완도군은 19일 섬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6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가수 하현우, 안성훈, 트리플에스, 요리사 오세득, 정지선, 배우 위하준을 위촉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신우철 완도군수, 홍보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홍보대사들은 제6회 섬의 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행사기간엔 현장을 직접 찾아 방문객과 소통하며 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올해 섬의 날은 '치유의 섬' 완도에서 8월7일부터 10일까지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열린다. 2019년 제1회(목포·신안) 섬의 날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전남에서 열리는 뜻깊은 행사다. 행사 기간에는 치유를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관, 섬 둘레길 걷기, 어린이 섬 치유 아카데미, 섬 발전 학술대회, 섬 주민 참여 행사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